



273호
2021.09.10.

공간의 위로, 노조의 거실



사장-노조 지역 지회장 간담회 첫 개최

지역 조합원들과 대화 노력 평가...구체적 비전과 해법 아쉬워



전국의 12개 지역 직할국 지회장과 김진오 사장의 간담회가 지난 30일 열렸습니다. 코로나 상황 때문에 비록 비대면 방식으로 진행됐지만, CBS 노사 관계에서 처음있는 일입니다. 노조의 요청을 수락해 지역 노조원들과 마주한 김진오 사장의 대화 노력을 높이 평가합니다. 다만, 지역 발전과 인력 문제 해결의 구체적인 비전과 해법을 제시하지 못한 점은 아쉽습니다. 적어도 해마다 한 차례 이상 간담회가 열리길 희망합니다. 계속 대화합시다.

간담회 내용을 정리하면, 첫 공통질문부터 **지역 인력난**이 나왔습니다. 지회장들은 각 지역의 현실을 고스란히 전하며, 조속한 인력 충원을 강력하게 요구했습니다. 김진오 사장은 “인력을 뽑겠지만, 올해는 어렵다”거나 “논의해봐야겠지만, 올해 말이나 늦어도 내년 1~2월에는 정규직 공채를 시작하겠다”고 답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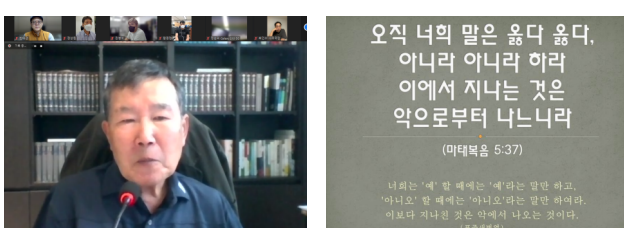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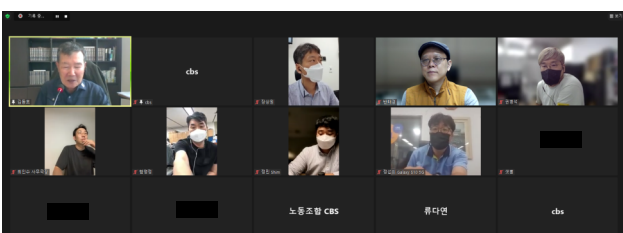
최근 회사의 역점 프로젝트인 ‘출산돌봄 캠페인’에 대한 지역국의 공감대가 있었지만, 지회장들은 자칫 **지역간 실적 경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김진오 사장은 “초저출산 문제의 심각성은 지역에서 더 잘 알 것”이라며 “지역국에 강권하지는 않겠지만, 재정 안정에도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역국 통폐합 추진 여부는, 사건 임을 전제로 “**최악의 경우가 아니라면 올해나 내년에는 미래 청사진에 통폐합 문제는 거론하지 않을 것**”이라고 김진오 사장은 말했습니다. 간담회 말미에 “저는 같이 사는 방식을 택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민정 지역국협의회장은 모두 발언에서 “최근 각 지역국에서 들리는 휴직 소식에도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대한 걱정과 위로보다 그 지역에 남은 조합원들은 어떻게 방송을 계속 만들어갈지부터 답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과 코로나19 위기 속 당장 다음 달 월급 걱정을 하는 게 지역국의 실정”이라며 “지역의 발전과 공동체 의식이 떨어지지 않도록 적극 대화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앙사경회] CBS에 노조가 필요한 이유

김동호 목사 "CBS에서 일 한다는 것, 인생을 걸어볼만 하지 않아요?...소명의식을 가지세요"



노동조합은 무너진 공동체를 다시 세우고, 우리 조합원들이 소명의식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신앙사경회를 열었습니다. 김동호 목사(높은뜻연합선교회 대표)께서 지난달 24일 첫 모임을 인도해주셨습니다. 우리가 CBS에서 살아가는 이유, CBS에서 노동조합이 필요한 이유를 주제로 말씀해주셨습니다. 30~40명의 조합원이 비대면으로 실시간 참여해주셨습니다. 은혜와 감동의 시간을 함께하지 못한 동료들을 위해 노조 유튜브 계정에 영상을 올려두었습니다. 스마트폰 카메라로 아래 QR코드를 찍으면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춘노조 신앙 사경회'를 검색하셔도 됩니다.

너희는 '예' 할 때에는 '예'라는 말만 하고,
'아니오' 할 때에는 '아니오'라는 말만 하여라.
이보다 지나친 것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마태복음 5:37, 표준새번역)



어떤가요



디지털콘텐츠에 공정방송 이슈가 생기면

노동조합이 정리한 공정방송협의회 회의 내용 및 결과 보고서

공정방송협의회는 지난 8월 30일 회의를 열어 다음 사항을 협의했습니다. 노동조합이 그 내용과 결과를 정리해 보고드립니다.

1. 공정방송협의회 구성

-공방협 구성은 편성·보도 책임자는 오준석(콘텐츠경영부문 총괄상무), 박철(제작국장), 김재덕(보도국장), 오현숙(TV제작국장), 노동조합 측 대표는 장규석(공방위 간사), 서병석(제작국), 이승규(TV제작국), 최인수(노조 사무국장) 등 노사 4인 동수 구성을 원칙으로 하되, 사안에 따라 양측의 추가 선임은 노사가 합의해 진행하기로 했음.

-노조는 디지털콘텐츠국의 공정방송 실현을 위해 디지털콘텐츠국 김지수 조합원을 노조 공방위원으로 추가 선임했고, 회사에 디지털콘텐츠국장도 포함해 노사 각 5인으로 공방협을 구성할 것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부동의.

2. 디지털콘텐츠 편성위원회 설치 논의

-CBS 방송편성규약은 사내외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으로부터 편성의 독립성과 자율성 및 실무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편성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운영한다고 규정함. '본부(국)별 편성위원회'는 취재 및 제작 업무의 특수성과 매체별 특성을 고려해 TV제작국, 제작국, 보도국에 각 하나씩 총 3개의 위원회로 운영하도록 함. 본 규약은 기술국은 본부(국)별 편성위원회에서 예외로 하고 있음.

-노조는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콘국의 제작 역량이 강화돼 온 만큼 공정방송을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디지털콘텐츠 편성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제안. 디지털콘텐츠제작부를 두고 자체 콘텐츠를 제작하고 있는 만큼 디콘국의 편성위원회 설치에 당연하다고 봄.

-회사는 디콘국은 디지털 미디어 전략 수립과 디지털 콘텐츠 제작 지원 등이 해당 국의 핵심 업무란 점을 고려해야 하며, 브랜드 콘텐츠 생산 영역이 섞여있으나 이제까지 공정방송 이슈가 일어나지 않았고 우려되는 점도 없음을 고려해 현재로서는 제도의 불필요한 운영이라고 부동의.



3. 보도 및 프로그램 진행자 관련 부당 압력에 대한 문제제기 및 재발방지 요구 등

-노조는 최근 김진오 사장이 특정 보도 및 프로그램 진행자와 관련해 부당한 압력으로 여겨질 수 있는 행동 및 발언을 한 사실에 대한 강한 문제제기를 하였고 재발방지 요구.

-회사는 사장 본인이 이미 유감 표명을 하였고, 이후 간담회를 두 차례 열어 허심탄회한 대화를 나눴다고 설명.

-조합은 아울러 최근 회사의 홍보, 동정 관련 기사를 기조실 소속 보직부장이 작성해 포털에까지 송고한 사실을 지적하며, 향후 사내외적으로 첨예한 갈등이나 이슈의 민감성으로 인해 기자와 PD 등이 보도와 제작을 거부할 경우 사측이 기사를 생산하는 사태가 발생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강조.

-회사는 오용의 문제점을 제도화하는 취지로 이해하지만, 회사의 단순 홍보 및 동정 관련 기사는 업무 효율성 등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

4. 제작/보도국장 후보자 추천 선거 관련 의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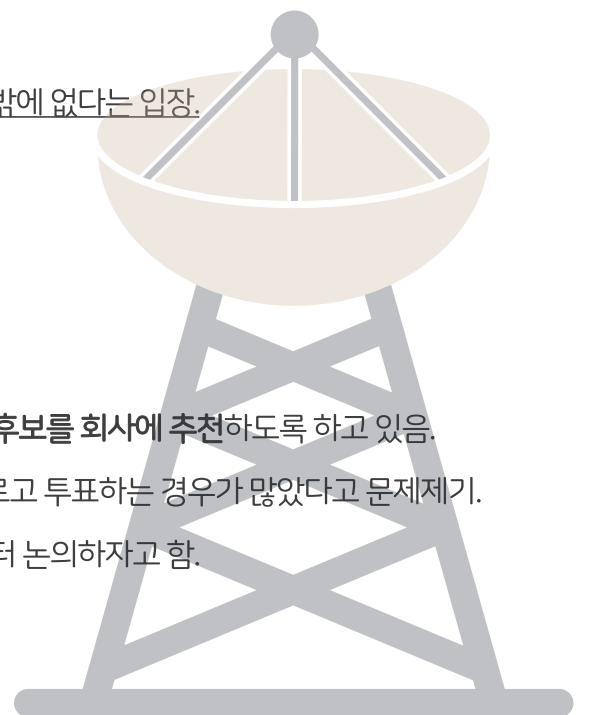
-회사는 현 제도에 폐해가 있다며, **임명동의제(중간평가 포함) 도입 제안.**

-노조는 **단체협약 개정 사안**이므로 공방협에서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힘.

-단체협약은 노조가 전 조합원의 총의를 국장후보추천 투표를 통해 공정하게 수렴해 공정방송 실현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후보를 회사에 추천하도록 하고 있음.

-회사는 현 선거 규정에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있고, 해당국 조합원이 아니거나 지역국 조합원의 경우 후보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투표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문제제기.

-노조는 이 문제 등에 관해 우선적으로 현 선거 규정 개정을 논의할 실무협의를 진행하자고 했지만, 회사는 단협 개정 여부부터 논의하자고 함.



'공간의 위로'를 주제로 한 이번 노보는 **아람발브실** 을 들여다봅니다.

<아름다운 당신에게>

'기도 다락방' 아람발브실 / TV제작국 장세정 조합원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5층에서 일하는 이평심입니다. 올해로 예순 다섯이고 슬하에 1남 1녀를 두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손주도 있는 할머니예요(웃음).

2014년부터 일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전업주부로 살아서 CBS가 첫 직장이에요.

늦은 나이에 시작한 사회 생활이라 어려운 점도 있지만, 그럴 때마다 '남편이랑 아들이 이렇게 힘들게 돈 버는구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도 지금 일하고 있는 게 정말 행복해요. 돈 버는 즐거움도 알게 됐고요. 오래오래 다니고 싶어요.

일과가 어떻게 되세요?

보통 6시에 출근해서 3시 반에 퇴근해요, 몇몇 층은 사람 없는 시간에 나오려고 더 일찍 출근하기도 해요. 점심식사는 지하 2층 쉼터에서 먹어요. 당번이 밥을 하면 각자 싸온 반찬을 나눠 먹어요. 화목해서 좋아요.

아람발브실이 불편하진 않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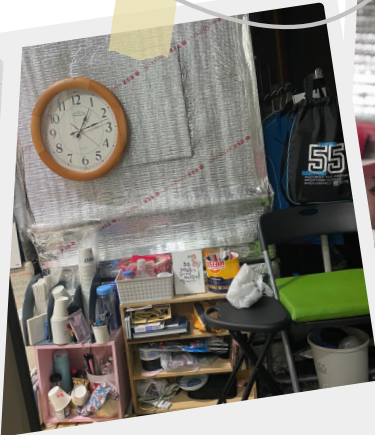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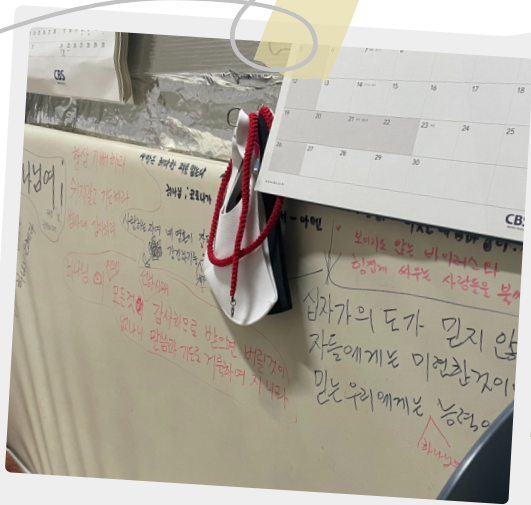
거긴 잠깐씩 땀 식히는 곳이지 휴식하기는 어려운 곳이지요. 휴게공간이 있으면 좋겠지만 지금 건물이 오래돼서 여유 공간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아람발브실이 제게는 소중한 곳이에요. 제가 CBS에서 일을 시작할 때 교회 여전도회장을 했었어요. 중보기도와 심방을 해야하는데 일하느라 시간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람발브실에서 짬짬히 기도할 수 있었어요. 기도할 수 있는 마음과 시간이 주어져서 감사했고, 남이 보기엔 비루해도 내게는 마가의 다락방처럼 좋은 곳이에요.

CBS에서 일하면서 좋은 점과 어려운 점이 있다면요?

일할 때 찬양을 들을 수 있어서 좋아요. 무심결에 흘러나오는 찬양에도 얼마나 은혜를 받는지 모릅니다. 어려운 점이 있다면, 사실 휴게 공간보다 샤워실이 제일 필요해요. 아침에 청소하고 나면 땀범벅이 되거든요. 여자들도 사용할 수 있는 샤워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에게 바라는 점

분리수거에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어요. 특히 음식물을 한 곳에 모아서 두면 저희가 일할 때 훨씬 편해요. 그리고 화장실 휴지통에 물병이나 분리수거할 수 있는 쓰레기는 안 버리면 좋겠어요.



아람발브실 습격사건(?) 시즌 2 이후

노동조합은 이평심 님 말씀을 듣고 '노조의 거실'에 작은 변화를 주었습니다.

음식물 처리통을 마련하고, 재활용품 분리배출도 제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작은 변화가 CBS 곳곳으로 번지길 바랍니다.



#스탑 더 비트, 플리즈~



#verse.1 방귀와 콧노래

"딱! 딱!" "부와~앙 꺾!" "으흐흥~"

이게 무슨 사운드일까요? (♫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톤)

정답은 바로 손톱 깎는 소리, 방귀랑 트림 소리, 흥부자의 콧노래 사운드입니다.

갑자기 회사 노보에서 웬 이런 생활감 넘치는 이야기냐고요?

맞습니다. 오늘 얘기는, 아주 사적인 일상생활 속 소리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이런 사적인 소리들이 생각보다 은근히 공용 공간인 사무실 안에서 많이 들린다는 (다수의!) 웃픈 제보.

나에게는 그것이 일상 사운드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알고 싶지 않은 타인의 개인사를 그대로 들어야 하는 소음일 수 있습니다.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동료들을 위해 명심해보자고요 :)

#verse.2 에어팟의 오해

‘안녕? 잘 지내지..?’ 이것은 소리 없는 눈인사, 마음의 소리.

오랜만에 마주친 동료에게 인사하려던 순간.

바로 그의 귀에 꽂혀 있는 무선 이어폰과, 한 점을 공허하게 응시하는 그의 눈이 보입니다.

말을 건네도 못 듣겠구나 싶어, 0.1초 만에 나도 스윙 눈을 돌리기로 합니다.

비트와 함께 하는 출근길도 좋고 에어X도 갤럭시버X도 모두 좋지만, 때로는 누군가와 안부 한 마디를 나누는 여유도 잊지 마시길요. 왜냐면, 그거 있잖아요 왜.. 어 안녕, 하려는 찰나 못하고 지나치면 되게 뻔뻔한 그거..

♪ 아멜리 노통브 <적의 화장법> 중 한 구절

“무엇보다도 청각이야말로 외부의 자극에 비교적 방비가 허술한 감각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눈은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눈꺼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냄새를 피하려면 코를 붙들고 있기만 하면 되고요. 맛을 거부하기 위해선 뭐 흔히들 해온 절식이나 단식이라는 방법이 있지요. 촉각 역시 법이라는 것이 막아주고 있어요. 그러니 인간이란 단 하나의 약점, 즉 귀를 가지고 있다 이겁니다.”

COUPON

CBS 직원 할인, 그것을 알아봤다

목동을 헤맸으나, 사막의 오아시스 같았다는.. / 마케팅본부 장부윤 조합원

‘오늘 점심은 뭘 먹을까?’ 항상 고민되지요? 목동 사옥 근처 식당, 카페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걸 혹시 다 모르실 수 있겠다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CBS 임직원을 위한 할인매장 탐방기! 반경 200m 내외로 41타워, 파라곤, 현대백화점, 행복한세상 백화점을 둘러봤지만, CBS 혜택이나 할인은 기대보다 적었습니다. 총 13곳을 겨우 찾을 수 있었는데요. 회사와 별도로 제휴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식당이나 커피숍 사장님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라고 하네요. 하루 빨리 코로나가 극복되길... 혹시.. 노조가 모르는 할인 매장이 있다면, 제보(?)해주세요!

식당	카페	병/의원	미용
현대백화점 해우리 / 10% 할인	할리스 CBS점 / 10% 할인	헤세드 치과 CBS점 / 10% 할인	아이디헤어 CBS점 / 10% 할인
41타워 배꼽집 / 점심 10% 할인	이디야 CBS점 / 커피류 300원 할인	41타워 연세미래치과 / 10% 할인	
41타워 휘귀야 / 10% 할인	파라곤 카페인동 / 10% 할인		
41타워 고래아방 / 5% 추가적립	행복한세상 투썸 / 10% 할인		
41타워 코코이피방야 / 10% 할인			

더는 흔들지 말고, 흔들리지도 말라.

낙선자들, 더 이상 CBS 흑역사 만들지 말아야...재단이사회, 선거제도 후퇴 논의도 좌시하지 않을 것

사장 선거에서 낙선한 6명이 6월 중순 김진오 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신청'이 지난 3일 기각됐다. CBS 역사상 초유의 사장 선거 관련 법정 소송 진행에 대해 이미 유감을 표명했던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는 법원의 이번 판결을 존중하며, 당사자와 공동체 구성원 모두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을 당부한다.

먼저 회사는 석 달 가까운 기간 진행된 법정 소송의 후유증을 조속히 수습해야 할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심화하는 경영 위기 및 광고 결합 판매 제도 일몰 전망 등으로 CBS는 말 그대로 백척간두의 위기에 서 있다. 임기 초반의 큰 혼란도 일단락됐으니, 회사는 광고 결합 판매 제도 보완 및 사옥 개발-이전 추진 등 현안 과제를 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하며 본격적으로 진행해 나가야 한다. 경영 위기를 핑계로 건축 재정만 추구하며 지역 등 필수적인 현업 인력 채용을 늦추려고 해서도 안 된다.

소송을 제기한 낙선자들에게도 부탁한다. 30년 넘는 젊음을 쏟았던 친정을 더 이상 흔들지 말아 달라.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 등으로 법정 소송까지 진행했던 처사는 이미 CBS 역사에 큰 오점으로 남았다. 더 이상의 흑역사를 만들지 말라. 흑역 예고한 직원들에 대한 형사고발 등을 실제로 진행한다면, 노동조합은 그에 상응하는 '실력'을 보여줄 준비가 돼있다. 다시 한 번 명토 박아둔다. 노동조합의 역사와 조합원에 대한 공격은 노동조합에 대한 선전포고다.

노동조합은 재단이사회에 요구한다. 사장 선출로 인한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 주체는 이사회다. 그동안 형식적인 조사 및 이사장 명의의 사고(社告) 외에 이사회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의문이다. 오히려 사장 선출 제도를 손봐야 한다는 이야기가 이사들 사이에 오갔다고 한다. 노동조합은 현재의 선거 제도를 후퇴시키는 논의는 좌시하지 않을 것이다.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함께 CBS 지배구조 자체에 대한 근본적인 토론을 시작할 것이다. 지난 67년간 CBS의 가치와 역사를 지켜온 건 CBS 직원들, 그리고 노동조합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길 바란다.

너희는, 다만 공의가 물처럼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여라.
(아모스 5:25, 표준새번역)

2021. 9. 7.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NATIONAL UNION OF MEDIAWORKERS

'해장국 언론'이 되지 맙시다

전국언론노동조합 윤창현 위원장이 CBS 조합원 동지에 보내는 편지

CBS 조합원 동지 여러분, 전국 언론노동조합 위원장 윤창현입니다.

날로 격화되는 미디어 시장의 경쟁, 온갖 진영논리와 음모론의 창궐, 극에 달한 언론불신 속에 오늘도 묵묵히 현장을 지키고 계신 여러분께 마음 깊이 존경과 연대의 인사를 올립니다.

언론노조 11대 집행부가 출범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공영방송지배구조 개선을 포함한 해묵은 언론개혁 과제를 4대 입법 과제로 의제화하고, 백척간두에 놓인 언론노동자들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다양한 사업과 투쟁으로 쉼없이 달려온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대선을 앞둔 정치세력은 지지자들의 결집과 정치적 이해득실을 앞세우며 쉽사리 기득권을 포기하고 않고 있고, 우리에게 필요한 개혁의 성과는 더디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코로나 창궐로 집회 조차 어려운 환경에서 싸울 방법을 고안해내기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 와중에 불거진 언론중재법 개정 논란은 민주주의의 시스템인 '언론'이 아니라 혐오의 대상으로 '언론'을 규정해 시민으로부터 끊임없이 분리하고 고립시키며, 특정 진영의 이익을 위해 정치적 공격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자의적 해석으로 멋대로 '가짜뉴스'를 규정하고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도록 만들어 언론의 정상적 기능을 위축시키는 것은 언론개혁이 아닐 뿐 더러 정치, 자본 권력의 횡포와 부패에 대한 감시를 둔화시켜 결국 서민과 노동자들의 피해를 부를 수 밖에 없습니다.

문제가 있는 언론이 적지 않고,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허위 조작 정보에 따른 피해가 늘고 있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지만 이를 모호하고 무리한 법적 개념을 적용해 멀쩡한 진짜 뉴스, 양심적 언론인들까지 때려 잡는 법을 만든다고 해결될 리 만무합니다. 환부를 도려내야 할 수술이 정교하지 못하면 환자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언론노조의 핵심 강령이 바로 '공정보도를 가로막는 권력과 자본의 횡포'에 맞서는 일입니다. 또한 공정보도는 우리 언론노동자들의 핵심적인 노동조건이기도 합니다. 현재 언론노조가 주도하고 있는 언론중재법 관련 투쟁은 결국 우리의 강령과 노동조건을 지키기 위해 피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언론노조가 언론의 사회적 책임과 시민신뢰를 가벼이 여길 수도, 포기해서도 안될 일입니다. 그래서 언론노조는 합리적 대안 마련을 위한 사회적 합의 기구를 만들고, 언론 신뢰 회복을 위한 '미디어 윤리 위원회' 구성을 정치권과 언론계에 제안하며 구체적 대안 마련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CBS를 포함한 종교방송, 중소 방송사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결합판매 제도의 변화 방향에 대한 대응도 소홀히 하지 않고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자본과 시장 논리에 날개를 달아주는 방식에 단호히 반대하고 미디어 공공성 강화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분명히 하며,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대안을 모색해 CBS 조합원 동지들의 생존권을 지키는 일 또한 언론노조의 중요한 책무이기 때문입니다.

동지 여러분, 갈수록 우리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과 사회적 인식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늘 사회적으로 불편한 존재일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불편한 언론이 때로 해장국같은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진실 대신 후련함을 우선하는 해장국 언론은 결국 사회를 병들게 합니다.

언론노조는 늘 쉽지 않은 길을 택해 왔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기는 길을 뚫어 왔습니다. 이번에도 그럴 것입니다. 동지들과 함께 그 길을 묵묵히 헤쳐나가겠습니다. 투쟁!!





노조는 왜 거실을 만들었나요

지금까지 이런 노동조합 휴게실은 없었죠. 우리는 이곳을 '노조의 거실'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조합원이 모이는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22대 노조가 견지하려는 기조는 딱 하나, '생동(生動)하는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입니다. 조합원 모두가 노조 깃발 아래 하나 되어 서로의 소명을 확인하고 함께 울고 웃으며 살아가는 날을 꿈꾸며 말입니다.

벌써 많은 조합원이 방문해 주셔서 힘이 납니다. 대의원대회에서 인준받은 예산을 알뜰하게 집행해 내부를 꾸몄고, 집행부가 직접 조립과 설치를 했습니다. 조합원의 공간을 늘리는 대신 전임자들의 공간은 줄였습니다.

이번 노보 273호 1면의 조합원들 모습은 제가 찍었습니다. 노보에 실는 것을 동의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집행부 회의나 간담회 장면은 있지만, 조합원들이 옹기종기 모여 대화를 나누거나 우리가 만든 콘텐츠 영상이나 영화를 함께 보는 모습은 아직입니다.

당분간은 코로나 방역지침을 철저히 지켜야 할 때여서입니다. 아쉽지만, 우리 모두의 건강이 우선입니다.

상황이 나아진다면, 함께 도시락 점심을 나누고 베이킹파우더 시즌2도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장기나 오목도 두러 오세요. 당근마켓에서 플레이스테이션을 구매하자는 의견도 추진해보겠습니다 ㅎㅎ 노조의 거실에는 늘 CBS 라디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합원 모두가 편히 쉴 수 있는 '사랑방' 같은 공간으로 잘 가꿔가겠습니다. 눈에 밝히는 건 지역 조합원들의 근무 환경과 휴식 공간입니다. 직접 그 환경을 제가 확인했기 때문입니다. 지혜를 모아보겠습니다.

22대 집행부는 비대면으로라도, 앞으로 있을 '위드 코로나' 시대에 맞춰 다양한 노조 사업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이번 노보에 그 기획의 흔적을 일부 담았습니다. 모두의 안녕을 기도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CBS지부 위원장 반태경



Salon de 춘노조'S COFFEE

혁명을 잉태한 공간, 2층 외진 파라다이스

드립 커피 가끔 제공(일시중단)
TAKE-OUT 알아서
위원장's 하이 개그 &
프로필 촬영 SERVICE

이용 방법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지켜주세요. 마스크 착용 유지를 위해 당분간 식/음료 자제!
형광등 조명은 꺼냈습니다. 차분한 분위기에서 CBS라디오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떠나실 때는 반드시 깔끔한 뒷정리를 부탁드립니다.

오픈 시간

평일 오전 10시~ 오후 5시
(거리두기 4단계)
점심시간/회의 및 외출시 유동적

오픈 시간 외 이용

Kakao Channel
집행부에 직접 연락주시거나,
카카오채널에서 '춘노조'를 추가하세요.

02 사장-지회장 간담회 / 신앙사경회(김동호 목사)

03 공방협 보고서 / 디지털콘텐츠 편성위 이슈

04 아람발브실 습격사건 / 춘직원 할인의 모든 것

05 춘노조 랄랄라 : 방귀와 콧노래, 에어팟의 오해

06 소송은 여기까지, 이제 미래를 논하자

07 윤창현 위원장이 CBS 동지들에 보내는 편지

발행인 | 반태경
편집인 | 최인수·류다연
편집위원 | 김지수·김태현·서연미·
이정우C·장부윤·장세정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1
www.cbsunion.or.kr
02.2650.7390